

홈 > 불교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벽을 허무는 큰 울림"

박준상 기자 | 입력 2021.10.13 14:02 | 수정 2021.10.13 23:42 | 댓글 3

가 가



BBS TV, 2015년 자승스님 천주교광주대교구 법문 '큰스님의 아멘' 방영
 불교의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회향 없는 구원 없다"
 '화합의 메시지'..."이웃 종교에 낮게 다가가는 노력, 마음의 벽 허물어"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2015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가톨릭 성당에서 설한 특별 법문이 BBS TV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됐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 '큰스님의 아멘'이 불교계 안팎에서 감동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 문화·스포츠 |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
- 정치 |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
- 정치 |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
- 전국 | '선을 넘다'...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 내...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우상호 "故 노태우, 공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역사**
- 2 **부산, 윤석열-홍준표 지지 선언 대결 속... '줄세우**
- 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으로 ... 정재계**
- 4 **[코로나19]부산 코로나 19 신규 확진 49명**
- 5 **[코로나19] 접종완료자 총 3천670만9천777명**
- 6 **깊어가는 가을, 도심공원에서 코로나이후 일상회**



기자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를 이끌고 있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의 미공개 법문 '큰스님의 아멘'이 BBS TV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2015년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 당시, 김희중 대주교 초청으로 천주교 광주 대교구를 찾아 카톨릭 신자들 앞에서 직접 법문을 설한 영상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선근공덕을 이웃과 나누는 ‘회향’ 없이 과연 ‘구원’이 가능한지 등 불교 수행자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단 한차례 방송의 BBS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큰스님의 아멘’을 보기 위해, 곳곳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단체 관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묘주스님 /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해봉 자승 큰스님께서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화합의 길과 방법을 격조 있게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법문을 들으신 분 중에서 심적으로 감명을 받고 나중에 개종하는 분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성이 / 동국대학교 총장>

“종교간 화합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데, 오늘 법문을 통해 전세계 종교인과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종교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또, 교황 방한 자리에서 개종을 권유받는 등 스님이 겪어온 이웃 종교의 배타성에 관한 사례가 웃음을 선사하면서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고..

낮은 자세로 타 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스님의 모습에서 어느새 마음의 벽이 사라졌다는 소감도 나옵니다.

<이영경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자기가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갖고 나머지는 공동체나 사회를 위해서 회향하는 것이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학생들에게 지혜와 자비, 정진이라는 우리의 이념을 잘 가르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회향해서...”

<민세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수미산원정대원>

“사실 여러 가지 천주교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날카로운 말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그런데 그것이 날카롭게 다가가지 않은 것은 큰스님께서 다가가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큰스님의 메시지는 이웃종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양수진 씨는 천국도 지옥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스님의 법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종교에서 느꼈던 교리적 모순점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접하면서 극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BBS 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시선'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양수진 / 헬스케어 업체 '구스타' 대표/수미산원정대원>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다 우리가 마음 편해지자고 믿는 종교 아닌가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또 사람들끼리 서로 다부지게 살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종교가 내 종교다 저 종교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동대부여중, 동대부고, 동대부여고 등 동국학원 종립 학교들도 BBS TV '큰
스님의 아멘'을 단체 시청하며 청소년 종교교육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가?

한국불교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결사가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에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스님의 아멘' 프로그램은 벽을 허무는 모든 일은
결국 마음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장준호 기자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과 정각원장 묘주스님, 임직원들이 교내 법당인 정각원에서 '큰스
님의 아멘'을 시청하고 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추천
1



반대
0

당신만 안 본 뉴스

강원 초.중.고 전교생에 10만원 상당 '슬기로운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법제화 시동

오서연 '개그콘서트' 출연자 8인, "체면 서연히



BBS NEWS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가

가



기사 댓글 3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
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최신순** 추천순 ●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중흥 2021-10-14 16:22:44

믿는 방식은 달라도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쓰기

👍 2 🗨 0

불교중흥 2021-10-14 16:17:17

불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신 순례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종교화합의 훌륭한 매세지입니다.

답글쓰기

👍 2 🗨 0

광목 2021-10-14 09:23:09

계를 범한 자승은 좀 니대지말았으면 좋겠다

답글쓰기

👍 4 🗨 0

주요기사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짐...2021 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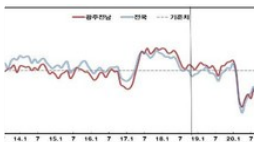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평신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내일



'선을 넘다'...제 12회 광
주 여성영화제 내달



광주전남 소비심리 2개
월째 상승..전달 대비

